

2년 전 정현 조코비치 아니다



세계 테니스계가 주목하는 '떠오르는 별' 정현(58위·삼성증권 후원)이 남자 테니스 '빅4'까지 노린다. 정현은 22일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5500만 호주달러·약 463억원) 남자 단식 16강에서 노바크 조코비치(14위·세르비아)와 일전을 벌인다.

이미 정현은 한국 테니스의 역사를 새로 썼다. 20일 남자 단식 3회전에서 알렉산더 즈베레프(4위·독일)에게 3-2(5-7 7-6(7-3) 2-6 6-3 6-0)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둬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호주오픈 16강에 올랐다.

한국인 메이저 대회 16강은 1981년 US오픈 여자 단식 이덕희, 2000년과 2007년 US오픈 남자 단식 이형택 이후 정현이 처음이다.

정현과 조코비치의 만남은 정확히 2년 만이다. 2016년 호주오픈 1회전에서 당시 세계 51위였던 정현은 세계 1위 조코비치와 만났다.

호주오픈 본선에 처음으로 출전한 정현은 조코비치를 넘어서기에 역부족이었다. 간혹 날카로운 스트로크로 조코비치의 발을 묶긴 했지만, 0-3(3-6 2-6 4-6)으로 완패했다.

조코비치가 2년 전만을 생각하면 곤란하다. 그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다.

정현은 지난해 남자프로테니스(ATP)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에서 자신의 첫 투어 대회 우승을 거뒀다.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는 21세 이하 선수 가운데 순위가 높은 8명이 출전해 기량을 겨룬 대회다.

이 대회에서 우승한 정현은 단숨에 세계 테니스의 미래를 이끌어 갈 선수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당시 세계 순위가 가장 높았던 즈베레프는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대신 ATP 월드 투어 파이널스에 나섰다. 그리고 정현이 호주오픈 3회전에서 즈베레프를 격파하자 세계 테니스계는 그를 '20대 초반 기수'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반면, 조코비치는 2016년 정점을 찍은 뒤 서서히

'상승세' 정현

21세 이하 톱8 출전한

넥스트 제너레이션 파이널스 우승

세계 4위 즈베레프마저 격파

'하락세' 조코비치

2016년 세계 1위 내주고

지난해 메이저 8강 최고 성적

팔꿈치 통증 시즌 조기 마감

오늘 호주오픈 테니스 16강 격돌



조코비치

내리막을 타고 있다.

조코비치는 2015년 윌블던과 US오픈에 이어 2016년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까지 제패해 4개 메이저 대회에서 연속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2016년 말 앤디 머리(19위·영국)에게 세계 1위 자리를 내줬다.

작년에는 프랑스오픈과 윌블던 8강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이며, 이후 팔꿈치 통증을 이유로 시즌을 일찍 접었다.

재기를 노리는 조코비치는 호주오픈을 통해 코트에 복귀했다. 2회전 상대인 가엘 몽피스(39위·프랑스)에게만 1세트를 내줬을 뿐, 1회전 상대 도널드 영(63위·미국)과 3회전 상대 알베르트 라모스 비놀라스(22위·스페인)를 모두 3-0으로 제압했다.

역전지 조코비치는 정현에게 쉽지 않은 상대다. 뉴욕 타임스는 "새로운 서브를 장착한 조코비치가 위협적인 상대 정현과 상대한다. 조코비치가 정현을 꺾으면 8강에서 도미니크 팀(5위·오스트리아)과 만날 것"이라고 조코비치의 승리 쪽에 무게를 뒀다.

가디언은 "3회전을 쉽게 통과한 조코비치가 16강 상대 정현과 어려운 경기를 펼칠 것"이라면서도 조코비치와 페테리가 4강에서 만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현이 조코비치를 넘어설 열쇠는 자신감이다. 그동안 세계 10위권 선수를 상대로 8전 전패였던 정현은 즈베레프를 제압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조코비치의 허리 상태도 변수다. 조코비치는 3회전 도중 허리 통증으로 메디컬 타임아웃을 불렀다. 그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팔꿈치 부상에서 회복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능한 조심스럽게 경기할 수밖에 없다. /연합뉴스



정현(58위·삼성증권 후원)이 20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3회전에서 공을 받아치고 있다. 이날 정현은 알렉산더 즈베레프(4위·독일)에게 3-2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두고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호주오픈 16강에 올랐다. /연합뉴스

취약한 4라인 北 3명 넣거나 한 라인 5명 전체 맡기거나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방법은?

전력차 크고 용어 달라...남은 20일 손발 맞추기도 빠듯

내달 4일 스웨덴 평가전·10일 스위스와 조별리그 1차전

올림픽 사상 최초로 결성된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이 코앞으로 다가온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할지 관심이 쏠린다.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 주재로 열린 '남북 올림픽 참가 회의'를 통해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관련해 결정된 것은 두 가지다.

기존의 우리 선수 23명에 북한 선수 12명이 가세해 단일팀의 규모가 총 35명이 된다는 것과 북한 출신 선수가 경기당 3명 정도라는 것 외에는 세부적인 사항은 알려진 게 없다.

남북단일팀은 2월 4일 스웨덴과 평가전을 치른 뒤 5일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첫 경기는 2월 10일 열리는 스위스와 조별리그 1차전이다.

스웨덴과 평가전까지는 2주, 역사적인 올림픽 첫 경기까지는 20일이 남았다. 북한 선수의 기량을 파악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고, 실전 테스트할 기회는 스웨덴과 평가전이 유일하다.

합동 훈련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도 난제다. 우리 대표팀은 2014년 9월 세리 머리(30·캐나다) 감독이 부임한 이래 우리만의 전술과 시스템으로 조직력을 끌어올려 왔

다. 북한 선수들에게는 생소할 수밖에 없고, 서로 쓰는 아이스하키 용어마저 다르다.

남북단일팀 사령탑을 맡게 된 머리 감독은 지난 16일 "북한 선수에게 대표팀의 전술을 가르치는 데만 해도 한 달이 걸린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북한 선수가 섞여서 훈련하면 우리 대표팀의 조직력이 흐트러지는 문제가 생기고, 그렇다고 따로 훈련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북한 선수들의 기량이 뛰어나다면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남북한의 전력 차이가 크다. 한국은 지난해 4월 세계선수권 디비전 2 그룹 A(4부리그) 대회 4차전에서 북한을 3-0으로 완파했다.

머리 감독은 "북한 선수 중에서 우리 전력에 보탬이 될만한 선수는 2~3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경기당 투입되는 북한 선수 3명에게 우리 대표팀의 취약 라인인 4라인을 맡기는 것이다. 총 6명이 한 팀을 이루는 아이스하키에서 골리를 제외하고 3명의 공격수와 2명의 수비수로 이뤄진 한 조를 라인이라고 한다.

북한 공격수 3명 또는 수비수 2명에게 한 라인을 책임지게 하면 북한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 호흡 문제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다만 우리 대표팀은 지금까지 형식적으로는 4라인까지 구성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1~3라인 위주로 경기를 운영했다. 4라인의 경기 출전 시간은 극히 미미했다.

남북단일팀은 스위스, 스웨덴, 일본과 조별리그 3경기를 포함한 순위 결정전까지 최소 5경기를 소화한다. 북한 선수의 기량에 따라 경기마다 출전 시간을 탄력적으로 부여하면 12명에게 골고루 출전 기회를 줄 수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 꺾은 여자컬링, 메이저 그랜드슬램 동메달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여자컬링 국가대표팀이 '현 세계챔피언'을 꺾고 월드컵투어 그랜드슬램 4강에 진출해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은정 스킵이 이끄는 여자컬링 대표팀은 21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로즈에서 열린 '월드컬링투어 메디안 캐나다 오픈 그랜드슬램 오브 컬링' 플레이오프 4강전에서 캐나다의 첼시 캐리 팀에 4-6으로 패했다.

6연드까지는 4-4로 팽팽하게 맞섰지만 7엔드에서 2점을 잃으며 결승 진출 티켓을 캐리 팀에 내줬다.

비록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대표팀은 월드컵투어 대회 중에서도 상급 규모와 출전자 수준이 높은 메이저대회 그랜드슬램에서 최종 3위에 오르며 한국 컬링 역사상 최초 올림픽 메달 획득 기대를 키웠다. /연합뉴스

앞서 대표팀은 8강전에서 평창동계올림픽 예선 첫 상대인 캐나다 국가대표팀 레이철 호먼 팀을 7-4로 제압하며 올림픽 직진에 성공했다.

호먼 팀은 2017 세계여자컬링선수권 대회에서 13전 전승으로 우승을 거머쥔 현 세계챔피언이다. 또 컬링 강국인 캐나다에서 치열한 선발전전을 뚫고 국가대표로 선발, 평창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팀이다. 특히 호먼 팀은 한국 여자컬링팀의 평창동계올림픽 첫 경기인 다음 달 15일 예선전 상대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는 여러 컬링 국가대표팀이 참가해 평창동계올림픽 전초전이 됐다. 김민정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컬링 대표팀은 김은정 스킵과 김영미(리드), 김선영(세컨드), 김경애(서드), 김초희(후보)로 구성돼 있다.

윤성빈, 세계 1위로 평창 간다

9시즌만에 두쿠르스 제쳐

'스켈레톤 천재' 윤성빈(24·강원도청·사진)이 올 시즌 마지막 월드컵에 불참하고도 세계랭킹 1위 자리를 지켰다.

21일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IBSF)에 따르면 윤성빈은 2017~2018시즌 월드컵에서 총 1545점을 얻어 시즌 최종 세계랭킹 1위에 올랐다.

무려 9시즌 만에 왕관의 주인이 바뀌었다. '스켈레톤 황제' 마르티너스 두쿠르스

(34·라트비아)는 2009~2010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8시즌 연속 정상에 올라 있었다.

지난 시즌 세계랭킹 3위(월드컵 기준 2위) 윤성빈은 올 시즌 7차 대회까지 금메달 5개,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다.

당초 윤성빈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트랙에서 조금이라도 더 훈련하고자 7차 월드컵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마지막 8차 월드컵까지 치른 뒤 정해지는 최종



세계랭킹에서는 두쿠르스한테 밀릴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두쿠르스가 7차 월드컵에서 장비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동메달을 땀

던 두쿠르스는 '탈락'으로 반복돼 7차 대회에서 포인트를 전혀 쌓지 못했다.

두쿠르스는 총 1440점으로 세계랭킹 4위에 그쳤다. 독일의 악셀 융크는 1507점으로 윤성빈에 이은 2위, 두쿠르스의 친형인 토마스 두쿠르스는 1464점으로 3위로 시즌을 마쳤다.

남자 봅슬레이 2인승 부문에서는 저스틴 크립스의 캐나다 팀이 세계랭킹 1위로 시즌을 마쳤다. 독일의 프란체스코 프리드리히 조는 2위, 캐나다의 크리스 스프링 조는 3위를 차지했다.

평창올림픽 메달에 도전하는 원윤종(33·강원도청)-서영우(27·경기BS경기연맹) 조는 21위다. /연합뉴스

KIA 윤석민 2년만에 스프링캠프 참가

일본 오키나와와 KIA 타이거즈 윤석민의 부활 무대가 된다.

윤석민이 KIA의 2018 스프링 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년 만에 참가하는 스프링 캠프다.

윤석민은 지난 2016시즌이 끝난 뒤 어깨 옷자란 뼈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2017 스프링캠프에는 참가하지 못했다. 재활조가 된 윤석민은 오키나와 대신 함평 헬린저스 필드에서 2017시즌을 준비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재활 과정이 반복되면서 2017시즌 한 경기에도 나서지 못했다.

재기를 위해 철저부심 훈련을 해왔던 윤석민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에서 2018시즌 준비를 하게 됐다.

본격적인 훈련에 앞서 윤석민은 오키나와에서 워밍업을 하고 있다. 후배 박경태와 얼마 전 오키나와로 건너간 윤석민은 피칭을 하는 등 개인 훈련을 하고 있다. 윤석민은 현지에서 바로 스프링캠프 선수단에 합류할 예정이다.

KIA 스프링캠프 선수단은 오는 31일 오키나와로 건너가, 2월 1일부터 '3일 훈련 1일 휴식'일정으로 훈련을 진행한다. 또 14일 긴 구장에서 열리는 일본 라쿠텐전을 시작으로 12차례 연습경기를 하고 실전 준비에 나선다.

한편 광주 동성고 출신의 포수 한준수는 유일한 신인으로 이번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에 참가한다.

/김여울기자 wool@